

일본의 새소식

在大韓民國日本國大使館公報文化院
110-350 서울특별시 중로구 을곡로 64 Tel. 02. 765. 3011~3

07

2015 | Vol. 526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 겐로쿠엔 · 시구레테이 (石川縣 金沢市 兼六園 · 時雨亭)
Photo: Kazuhisa Ishikawa



일한 국교정상화 50주년 축하행사

6월 22일, 서울과 도쿄에서 동시에 일한 국교정상화 50주년 축하행사가 개최되었다.

서울 행사는 주한일본대사관 주최로 개최되었으며, 일한관계에 애써 주신 인사 7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일한 국교정상화 50주년 관련 축사를 했고,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郎) 일한의원연맹 회장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총리대신 메시지를 대독했다.

이날 행사는 서울일본인학교 학생과 서울시 소년소녀합창단의 합창으로 시작되었으며, 1965년 서울에서 열린 '일한 기본조약' 비준서 교환식 당시 제작된 병풍도 공개되었다.

앞으로도 일한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으로 양국에서 실시되는 다양한 행사를 통해, 예술, 학술, 스포츠 등 폭넓은 분야에서 양국 국민간의 교류 촉진과 상호 이해 증진 및 우호 관계가 더욱 강화되기 바란다.

공개 전시된 병풍에 대해

축하행사 단상에 공개 전시된 병풍은 1965년 12월 18일 서울에서 열린 '일한기본조약' 비준서 교환식에 맞춰 제작된 것이다. 이 병풍은 그 후, 1970년 1월 이후락 제3대 주일한국대사가 일본에 부임하기에 앞서 가나야마 마사히데(金山政英) 당시 주한일본대사와 회담하는 자리에서 기념품으로 주한일본대사관에 증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 병풍은 한 쌍으로 이루어진 것 중 뒷부분으로, 앞부분은 현재 주일한국대사관에 보관되어 있고 도쿄에서 열린 축하행사에서 공개되었다. 이 병풍은 주한일본대사관에서 잘 보관해오다 국교정상화 50주년이라는 뜻 깊은 올해 다시 공개하게 되었다. 이 병풍에 쓰여 있는 시는 조선시대의 대표적 문인이자 시인인 송강 정철의 작품으로 '성산별곡(星山別曲)'이라는 가사(歌辭)의 일부분이다.



일한 외교장관회담

6월 21일(17:30분 부터 약2시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대신은 일본을 방문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일한 외교장관회담을 가졌고, 기시다 외무대신이 주최하는 만찬회를 개최했다.

그 개요는 다음과 같다(배석자 : 일본 측은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외무심의관,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아시아대양주국장 외, 한국 측은 유흥수 주일대사, 김홍균 외교부 차관보, 이상덕 동북아국장 외).



1. 윤병세 장관의 첫 방일로 일한 관계 진전을 위한 긍정적인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회담에서는 일한 관계 전반, 일한 국교정상화 50주년, 인적 교류, 안보와 경제 면에서의 일한 간 협력, 일한간 제반 과제, 북한 문제, 그리고 남중국해를 비롯한 지역과 국제사회의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2. (1)모두에 기시다 외무대신은 윤병세 장관의 첫 방일을 환영하며, 3월 방한 시의 따뜻한 환대에 감사한다고 말한 다음, 한국에서 메르스 유행으로 돌아가신 분들께 애도의 뜻을 표하며, 조기 종식 및 일본이 협력할 일이 있다면 협력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또한 6월 22일 도쿄와 서울에서 축하행사가 개최되는 것은 기쁜 일로 아베 총리와 본인(기시다 외무대신)도 참석한다고 밝힌 뒤,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국교정상화 50주년인 올해를 뜻 깊은 해로 만들어야 한다며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윤병세 장관은 소노우라 겐타로(園浦健太郎) 정무관의 공항 영접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 3월 외교장관회담 시에 기시다 외무대신의 방일 초청을 받고 격려가 되었으며, 국교정상화 50주년이기도 하여 일본을 방문했다고

말했다. 또한 메르스와 관련한 기시다 외무대신의 언급에 감사의 뜻을 표명했다.

3. 양 장관은 일한 양국에서 국교정상화 5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인증사업이 실시되고 있음을 환영하며, 올해가 뜻 깊은 해가 되도록 계속 협력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양 장관은 22일 도쿄와 서울에서 축하행사가 개최되는 것을 환영하며(양국 정상의 참석을 확인), 한일축제한마당을 비롯해 앞으로 개최되는 각종 행사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4. 양 장관은 국제회의의 장에서 외교장관회담을 정례화하고 상호 방문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윤 장관은 기시다 외무대신이 연내에 방한하도록 초청했고, 적절한 시기에 한국 방문을 위해 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일한, 일한미의 공조가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일한미 외교장관회의를 적절한 시기에 개최할 수 있도록 3국이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일한정상회의가 적절한 시기에 성사되도록 함께 노력하는 동시에, 일한중 정상회의를 가능한 연내에 조기 개최하자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5. 양 장관은 일한의 협력관계 강화는 일한 양국뿐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안보, 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실무적인 협력을 계속 강화해 가기로 했다. 한국의 메르스 유행에 대해서는 서로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대응해 가기로 했다.

6. 양 장관은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 규제 완화, '구민간인 징용'을 둘러싼 재판,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기소를 둘러싼 문제, 위안부 문제 등 일한 간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또한 일한 양국은 세계유산위원회의 책임 있는 멤버로서 동 위원회의 성공을 위해 협력하고 양국이 추진 중인 '메이지(明治) 일본산업혁명유산'과 '백제 역사 지구'의 안전이 함께 등재될 수 있도록 협력해 가기로 완전한 일치를 보았다.

7. 양 장관은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구체적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해, 북한 문제를 둘러싼 일한, 일한미의 긴밀한 공조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납치 등 북한의 인도적 문제에 대한 이해와 협력을 확인했다.

와카야마현 시라하마정과 경기도 과천시⁴⁵의 우호 교류

시라하마정 소개

와카야마현(和歌山県) 남부에 위치하는 인구 2만여 명, 연간 3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으로 붐비는 혼슈 굴지의 휴양지인 시라하마정(白浜町).

하얀 모래로 유명한 시라하마(白良浜)에는 야자수와 파란 바다, 상쾌한 바닷바람이 방문객을 맞이한다. 모래로 만든 독특한 조형물이 세워지는 ‘모래 축제 대회’, 수면에 비치는 커다란 불꽃이 아름다운 ‘시라하마 불꽃대회’, 일상의 훈련을 거루는 ‘트리아슬론 대회’ 등 시라하마를 중심으로 다양한 이벤트가 연중 펼쳐지고 있다. 또한 경승지인 센조지키(千畳敷)와 산단베키(三段壁) 산책 등 시라하마에는 매력이 넘쳐난다.

하얀 모래와 해변으로 유명한 시라하마지만 세계유산에 등록된 구마노고도(熊野古道)도 큰 매력 중 하나다. 구마노고도는 여러 루트로 나뉘어져 있으며, 이 가운데 시라하마를 지나는 오헤지(大辺路)는 이웃한 다나베시(田辺市)부터 기이반도(紀伊半島) 해안을 따라 나치(那智)의 하마노미야(浜の宮)에 이르는 길이다. 오헤지의 돈다자카(富田坂)와 호토케자카(仏坂)는 매우 험하고 길어 지금까지 이용객은 많지 않지만, 풍광명미한 경관 때문에 많은 문화인이 이 길을 지났다고 한다. 웅장한 기이산지의 산들을 바라보며 삼림욕도 즐기고 옛 길을 걷다 보면 기분 전환이 되어, 운동 부족이나 스트레스 해소로도 이어진다.



과천시에서 청소년어학연수



시라하마



한일축제한마당 시라하마 부스



시라하마에서 공연한 과천시소녀소녀합창단



과천시 청소년, 일본에서 문화체험

또한 아리마 온천(有馬温泉)·도고 온천(道後温泉)과 더불어 일본 3대 고탕(古湯) 중 하나인 시라하마 온천(白浜温泉)은 그 역사도 매우 깊어 아스카 나라시대(飛鳥奈良時代)부터 많은 궁인들이 이용한 유서 깊은 온천지로서 인기를 얻고 있으며, 온천을 목적으로 시라하마를 찾는 사람도 적지 않다. 마을 곳곳에 공중목욕탕도 있어 쉽게 온천을 즐길 수 있다.

모래사장, 세계유산, 온천 등 시라하마에는 많은 매력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물론 앞으로도 전세계인에게 매력적인 관광지일 것이다.

교류의 계기

2007년 와카야마현에서 과천시와 국제교류 제안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이후 시라하마정 직원과 의회의 과천시 방문, 과천시 직원의 시라하마 방문을 거쳐 2009년 우호도시제휴를 맺었다.

당시 시라하마정이 우호도시제휴 도시를 고려하던 시기였고, 과천시의 일본어 통역자가 와카야마현에서 일본어를 공부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또한 시라하마정은 해외관광객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었고, 과천시는 화초에 관심이 있었던 점 등 서로가 지향하는 바가 있어 교류에 적극적이었고 우호도시제휴로 이어졌다.

시라하마정과 과천시의 교류

시라하마정과 과천시는 직원간 인사교류를 비롯하여 지금까지 청소년어학연수, 문화전통예능 교류, 스포츠 교류, 상업 교류 등 다양한 교류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교류로서 가장 정착한 청소년 어학연수는 매년 8월 시라하마정 중고교생이 1주일간 과천시를 방문하여 홈스테이와 한국문화 체험을 하고 있다. 또한 매년 1월에는 과천시 고등학생이 2주간 시라하마정을 방문하여 홈스테이 체험이나 어학 연수, 일본 문화 체험을 하고 있다. 이 교류는 연례 행사로 정착되었으며, 지금까지 많은 학생이 홈스테이 체험을 통해 또 하나의 가족을 이루고 있다.

이 교류가 시작된 지 벌써 5년이 지났으며, 당시 시라하마를 찾았던 한국 고교생은 대학생이 되었고, 일본의 대학에 다니는 학생도 있으며, 대학에서 일본어를 전공하는 등 교류를 통해 서로의 지역뿐 아니라 상대국에 대해 알고 싶어지게 된 것은 정말 반가운 일이다. 특히 과천에서 시라하마를 찾는 고교생들은 한결같이 '이런 나라인 줄 몰랐다. 정말 좋은 경험이 되었다'고 한다. 이 시대를 짊어질 청소년들이 상대국의 진짜 모습을 체험하고 이를 자국에 전달하는 것은 교류 지역뿐 아니라, 양국의 우호교류로 이어질 것이라 생각한다.

앞으로의 교류

시라하마정과 과천시는 지금까지도 많은 교류를 통해 그 관계를 돈독히 해왔다. 때로는 정치, 외교, 시라하마정 담당자의 의식이나 사고방식 때문에 교류가 어려워진 시기도 있었다. 하지만, 교류 주체는 시라하마정 사람들과 과천 시민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부분에 좌우되지 않고 교류하고 싶어지게 하는 교류를 늘리고 지원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민간교류를 기획,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앞으로는 상업 교류에도 주력하여 시라하마정과 과천시 민간상업단체의 교류를 추진, 비즈니스로 이어질 수 있는 교류를 추진하고자 한다. 이는 다양한 교류를 하며 '이런 게 한국에 있었으면' '이런 게 일본에 있었으면' 하는 의견을 많이 들었기 때문이다. 비즈니스 교류를 추진함으로써 민간 교류가 활발해지고, 시라하마정의 지원 없이도 보다 견고한 민간 연계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시라하마정과 과천시는 다양한 교류를 통해 양국의 초석을 다져가고자 하니 주목하기 바란다.

문의처

시라하마정사무소 총무과 기획정책계
TEL : 0739-43-6598 / FAX : 0739-43-5353
HP : <http://www.town.shirahama.wakayama.jp/>

구마노 노부히코

JNTO

서울사무소 소장

인터뷰



2003년 JNTO 서울사무소에勤務されてから今回が8年ぶり2回目の赴任とお聞きましたが、久しぶりのソウルの印象はいかがでしょう。また、2003年当時と現在の日本旅行のトレンドに違いがあると思われませんか。(違いがあるとすればそれはどのような点でしょうか。)

思ったほど大きく変わってない気がします。街の雰囲気とか、人の雰囲気とかもそうですね。うちの事務所は10年前と同じ場所ですし、スタッフも全員同じなので「ただいま」という感じです。ただ街を見ると日本食レストランが増えたのはあります。日本のチェーン店もこちらに来ていますし、日本酒も増えましたね。

日本旅行のトレンドについてですが、大きな流れとして、若い人たちが行きやすい国であるというのは変わらないと思います。変わった点としては、一つは、今まで東京、大阪、福岡が中心でしたが、沖縄、北海道に行く人が非常に増えたということです。昔は沖縄はアジアナだけ、北海道は大韓航空だけが就航していたので料金が非常に高かったのですが、LCCの参入により価額が下がり、繁忙期やハネムーンだけでなく、1年中利用客であふれるようになりました。二つ目は釜山からの旅行者、路線が増えたことです。LCCが福岡、大阪、東京などに行っています。10年前は観光客のほとんどがソウルから出ていったのですが、今は釜山から出国される方も非常に増えました。

韓国人観光客の特徴は何でしょうか。

2泊から長くても4泊くらいの短期のお客様が多いことです。また、韓国の方は距離は近いこともあり、国内旅行の感覚で来て頂いているようです。例えば、ショッピングをしに、又は髪を切りにちょっとそこまで、本当にそのような

2003년 JNTO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한지 8년만에 다시 부임하셨다고 들었는데, 오랜만에 온 서울의 인상은 어떤가요. 또한 그 당시와 현재 일본여행의 트렌드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어떤 점인가요.)

생각보다 크게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거리나 사람들 분위기도 그렇구요. 사무소 역시 10년 전과 같은 곳이고 직원들도 모두 그대로라 '다녀왔습니다'라는 느낌입니다. 단, 거리를 보면 일본식 식당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일본 체인점도 들어와 있고 일본술도 늘었네요.

일본여행의 트렌드에 대해서인데, 큰 흐름에서 보면 젊은 사람들이 찾기 쉬운 나라라는 사실에 변함은 없습니다. 차이점은 첫째, 지금까지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가 중심이었지만, 오키나와, 홋카이도로 가는 사람이 많이 늘었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오키나와는 아시아나, 홋카이도는 대한항공만 취항하고 있어서 요금이 아주 비쌌지만, 저가항공(LCC) 가입으로 가격이 내려가고 성수기와 허니문뿐만 아니라, 1년 내내 이용객으로 넘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부산에서 가는 여행객, 노선이 늘어난 것입니다. LCC가 후쿠오카, 오사카, 도쿄 등을 운항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는 관광객 대부분이 서울에서 갔지만 지금은 부산에서 출국하는 분도 많이 늘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2박에서 길어도 4박 정도의 단기 여행객이 많습니다. 또한 한국 분들은 거리도 가까워 국내 여행하는 감각으로 오시는 듯합니다. 예를 들어, 쇼핑하러 혹은 머리 하러 잠시 들린다, 정말 그런 감각인 듯합니다. 따

感覚なのだと思います。したがって、日本国内で使う旅行費について見ましても、例えば中国の方などに比べると低く抑えられている感じがします。日本人も同じだと思うのですが、遠い欧州などに行くと、「せっかく来たのだから長い間泊まって、お金も思い切って使おう」という気持ちになると思いますが、韓国の方は「近いし、航空運賃も安いから、また来よう」という感覚になるようです。したがって、韓国の方は短期旅行で来て、何度も訪日するパターンが多いと思います。そういう流れはこれからも変わらないと思います。

訪日観光客、特に韓国からの観光客を増やすために、今後攻略すべき年齢層やターゲットはありますか。

数だけ増やすのであれば20代、30代の若い人たちに週末を利用して行っていたかというのが一番早いと思います。家族層だと子供の休みに合わせるなど、いろいろ調整が大変ですから。ただ、やはり家族層や富裕層の方々にも日本に行っていただきたいと思っておりますので、そういう方に向けた付加価値の高い旅行についてもPRしていきたいと思っています。

熊野所長が個人的に推薦する日本の名所はどこでしょうか。

よく聞かれますが、一番困る質問ですね(笑)。私の出身は高山というところで、富山から少し南にいったところにあります。今回はそこを紹介させていただきます。中部空港から直行バスがありますが、韓国の方はあまり行かないようです。やはり2泊3日では厳しい場所だと思います。しかし、台湾とか欧米の観光客は多いので、不可能ではないはず(笑)。一番有名な古い町並みがあるのですが、そこは欧米の方が非常に多いです。韓国の方にもぜひお越し頂きたいと思います。

あとは東北もおすすめです。食事も美味しいですし、韓国の方が大好きな温泉もゴルフ場もたくさんあります。日本の地方は魅力がいっぱいです。ぜひ訪れてほしいと思います。

今後の目標について聞かせていただけますでしょうか。

目標としては韓国から日本への訪問客を去年は280万弱だったのですが、これを365万人にして1日1万人というところに引き上げたいと思っています。地方は単一路線料金が高くて行きづらいですが、例えば、今度アジアナ系のLCCのエアソウルが新しくできて、アジアナの地方路線をエアソウルに代替するという話を聞いております。そうなれば、おそらく料金が下がって行きやすくなると思います。あとは大阪や東京からいかに地方に行ってもらおうかという施策が大事ですね。たとえばJR、バス、航空路線の相互乗り継ぎなどです。韓国から地方への直行便は週3、4便しかないため値段も高く、また、地方はあまりショッピングできる場所がないと言われます。しかし、乗継ぎを利用すれば、例えば東京でショッピングをしてから青森に行って観光をし、韓国に帰国するというようなコースも考えられます。お得な乗継ぎサービスを提供している日本の航空会社は国内のネットワークも強いですし、値段も安いので、それをうまく活用して地方をぜひ訪問していただきたいと思っています。

라서 일본 국내에서 사용하는 여행경비를 살펴보면, 예를 들어 중국 분등에 비해 덜 소비하는 듯합니다. 일본인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겠지만 먼 유럽 등에 가면 '모처럼 왔으니까 오랫동안 묵고, 돈도 과감히 쓰자'는 기분이 들겠지만, 일본의 경우 '가깝고, 항공 운임도 싸니까 또 가자'는 감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분들은 단기 여행으로 왔다가, 몇 번이고 방일하는 패턴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흐름은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일 관광객, 특히 한국 관광객을 늘리기 위해, 앞으로 공략하고 싶은 연령층이나 타깃이 있나요.

관광객 수를 늘리려면 20, 30대 젊은 세대가 주말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빠르겠지요. 가족 단위라면 아이들의 방학에 맞춰야 하는 등 여러모로 조정이 어려우니까요. 하지만, 역시 가족이나 여유 있는 분들이 일본을 찾을 수 있도록, 이런 분을 위한 고부가가치 여행에 대해서도 PR해 갈 생각입니다.

구마노 노부히코 소장님이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일본의 명소는 어디 인가요.

자주 듣는 가장 곤란한 질문이네요(웃음). 제 고향은 다카야마로 도야마에서 조금 남쪽으로 내려간 곳에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를 소개할까 합니다. 추부공항에서 직행버스가 있지만 한국 분들은 잘 방문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2박 3일로는 조금 벅찬 곳이지요. 하지만, 대만이나 미국, 유럽 관광객들은 많으니 불가능하지는 않을 거예요(웃음). 가장 유명한 옛 거리가 있는데, 그 곳에는 서양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한국 분들도 꼭 오셨으면 합니다.

또 한 곳은 동북지방을 추천합니다. 음식도 맛있고 한국 분들이 좋아하는 온천과 골프장도 많습니다. 일본의 지방은 매력이 가득합니다. 꼭 방문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의 목표에 대해 알려주세요.

목표는 한국에서 일본으로 가는 방문객을 작년 280만명에서 365만명으로 늘려 하루 1만명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싶습니다. 일본의 지방은 단일 노선이어서 요금이 비싸지만, 예를 들어 이번에 아시아나 계열의 LCC 에어서울이 새로 생기면서, 아시아나 지방노선을 에어서울이 대체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요금도 내려가서 방문하기 쉬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사카나 도쿄에서 지방으로 가도록 하는 시책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JR, 버스, 항공노선의 상호간 환승 등입니다. 한국에서 지방으로 가는 직항편은 주3, 4편 밖에 없기 때문에 가격도 비싼데다, 쇼핑할 곳이 별로 없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환승을 이용하면 예를 들어 도쿄에서 쇼핑하고 아모리서 관광하고, 한국으로 귀국하는 코스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익한 환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일본의 항공회사는 일본 국내 네트워크도 많고, 가격도 저렴하니, 잘 활용해서 지방을 꼭 방문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시카와현 소개

400여 년 전부터 가가하쿠만고쿠(加賀百万石)의 성시로 번성했으며, 기타마에부네(北前船) 왕래로 북적거리는 등 예로부터 사람이 교류해 온 이시카와현(石川県). 일본 3대 명산으로 손꼽히는 하쿠산(白山)과 비옥한 가가평야(加賀平野) 그리고 눈 앞에 펼쳐지는 일본해 등 일본에서도 손꼽히는 자연의 혜택을 받은 농산물과 수산물이 있어 풍요로운 생활을 누려왔다.

가가하쿠만고쿠 문화는 아직도 살아 숨쉬고 있어 역사적 정취가 있는 거리와 귀중한 문화재를 남기고 있으며, 일본국가지정 전통공예품부터 다도문화, 전통예능까지 현재로 이어지는 전통문화를 접할 수 있다. 또한 갓 잡아 올린 바다와 산의 진미를 비롯해서, 가가요리와 향토요리, 형형색색의 와가시(和菓子) 등을 찾아 일본 전역에서 식도락가가 모이는 곳이기도 하다. 또한 현 각지에서는 천연온천이 솟아나기 때문에, 일본해와 하쿠산 등의 절경을 바라보는 온천욕이나 삼림욕을 즐길 수 있는 노천온천, 역사를 느낄 수 있는 유서 깊은 탕 등 매력 있는 온천 여관도 많다.



Photo: Kazuhisa Ishikawa

겐로쿠엔 · 가나자와성 공원

일본 3대 정원 중 하나로 손꼽히며 일본의 특별명승지로 지정된 겐로쿠엔(兼六園)은 프랑스의 미술 랭 가이드에서 별 3개를 얻었다. 이름은 하나의 정원이 갖추기 어려운 6개 경관인 광대(宏大), 유수(幽邃), 인력(人力), 고색창연(蒼古), 수천(水泉), 조망(眺望)이 공존한다는 데서 유래하고 있다. 가가번(加賀藩)의 역대 번주가 약 180년에 걸쳐 만들었다. 다이묘 정원(大名庭園)의 넓은 원내에는 겐로쿠엔의 대표 경관인 가스미가이케(霞ヶ池)의 고토지토로(徽軫灯笼), 유키즈리(雪吊り, 눈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 새끼줄로 나뭇가지를 원뿔모양으로 묶는다) 풍경이 유명한 가라사키마쓰(唐崎松),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분수와 가나자와라는 지명의 유래가 된 긴조레이타쿠(金城霊沢) 등 다양한 볼거리가 있어 계절의 운치를 즐길 수 있다.

인접한 가나자와성 공원(金沢城公園)은 가가번주인 마에다가(前田家)의 성터를 공원화한 것으로서 일본의 중요문화재를 비롯하여 사실에 입각해 복원된 목조성곽건축물과 교쿠센인 마루테이엔(玉



泉院丸庭園 같은 정원 등을 즐길 수 있으며, 주말에 야간조명이 켜지면 볼거리도 많아진다.

히가시 찾집 거리

가나자와 시내의 우다쓰(卯辰山) 기슭을 흐르는 아사노강 둔치에는 아직도 아름다운 데고시(出格子, 외부로 돌출된 격자창)가 특징인 오래된 거리가 남아있으며, 옛 모습을 남긴 오래된 찾집이나 요리점이 줄지어 늘어서 있다. 가나자와에는 이 외에 가즈에정(主計町) 찾집 거리, 우타쓰 산록(卯辰山麓)과 데라마치다이(寺町台)가 일본의 중요전통건축조물군 보존지구로 지정하여, 거리 보존을 도모하고 있다.

연봉 하쿠산

일본 3대 명산 중 하나인 하쿠산으로 둘러싸인 산록에는 너도밤나무 숲 등 풍요로운 자연과 산골 특유의 문화가 있다. 그리고 자연의 혜택에 감사하며 자연과 공생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해발 2702미터인 하쿠산에는 상급자용부터 초보자용까지 여러 개의 등산 코스가 정비되어 있어, 폭넓은 연령대의 등산객들로 붐비고 있다. 특히 가을 단풍철에는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 곱게 물든 경치를 즐길 수 있다.

이러한 일본의 정취를 남긴 하쿠산 기슭은 소박한 온천 마을이기도 하다. 추구 온천(中宮温泉), 하쿠산 이치리노 온천(白山一里野温泉), 시라미네 온천(白峰温泉) 등이 있고 봄에는 잔설로 빛나는 시 하쿠산 연봉과 신록, 여름과 가을에는 야생 동물을 가까이서 보고 온천을 즐기면서 마음을 정화할 수 있다. 등산으로 지친 몸도 온천을 하며 재충전할 수 있다.



특색 있는 온천마을

1000년이 넘는 온천이 현 각지에 흩어져 있으며, 가가지방에는 산책을 즐길 수 있는 아마나카 온천(山中温泉), 1300년된 아마시로 온천(山代温泉), 아름다운 하쿠산이 보이는 호수 거리가타야마즈 온천(片山津温泉), 호쿠리쿠 최고 명탕인 아와즈 온천(あわづ温泉), 메이지(明治)의 문호인 이즈미 교카(泉鏡花)도 사랑한 다쓰노구치 온천(辰口温泉), 가나자와 근교의 유와쿠 온천(湯涌温泉), 노토(能登)에는 호쿠리쿠 굴지의 바다 온천인 와쿠라 온천(和倉温泉) 양질의 염화물 성분이 풍부한 와지마 온천향(わじま温泉郷) 같은 8개의 대표적인 온천이 있다. 이 매력적인 온천을 찾는 관광객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세계농업유산, 노토의 사토야마 사토우미(能登の里山里海)

일본 열도의 거의 중앙에 위치한 이시카와현 북부, 일본해로 돌출한 노토반도(能登半島)에서는 계단식 논과 저수지로 형성된 야산의 경관, 해녀 물잡이나 아게하마시 제염(해수를 모래 위에 뿌리고 건조시켜 만든 소금) 등 바다 자원을 이용한 전통예능 등이 계승되고 있으며, 전통적인 농업·농법, 농촌 문화와 경관이 평가되어 2011년 세계농업유산으로 인정되었다.

급경사에 1000개 이상의 논이 층층이 겹치며 아름다운 초록 계단을 이루는 '시로요네센마이 다(白米千枚田, 와지마시(輪島市))가 여름부터 가을까지 노토반도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올 4월 일본유산으로 인정된 '기리코 축제(キリコ祭り)' 등 볼거리도 많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통공예품

이시카와현에는 와지마누리(輪島塗), 가나자와



하쿠(金沢箔), 구타니야키(九谷焼), 가가유젠(加賀友禅) 등 예로부터 내려온 전통공예기술이 많이 전승되고 있다. 특히 일본에서 법률로 정한 전통적 공예품은 10개, 기타 전통적 공예품은 26개다. 인구당 인간문화재수가 일본 최고로 유명하며, 현내에는 전통공예기술을 계승하는 뛰어난 장인이 많다. 이들의 전통공예품은 이시카와현립 전통산업공예관을 비롯하여 각 박물관 등에서 전시되고 있으며, 오래 전부터 이시카와현에 정착한 장인의 기술을 만날 수 있다.

전통요리와 바다의 진미

바다에서 난 식재료를 가가지역풍으로 시간을 들여 조리하여 구타니야키 그릇(九谷焼の器)과 마키에(蒔絵)를 그린 칠기 등 호화로운 그릇에 담아내는 것이 특징인 가가요리(加賀料理). 가가하쿠만고쿠의 식생활 문화 그 자체를 우선 눈으로 보고, 풍요로운 맛을 미각으로 즐길 수 있다. 이런 최고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것이 가가요리의 매력이다.

또한 일본해와 나나오만(七尾湾) 두 개 어장이 있는 이시카와현은 사계절 내내 어패류를 즐길 수 있으며, 초밥 점포수와 초밥의 연간소비량이 일본 최고 수준이라 할 정도로 '초밥을 즐기는 현'이다. 이렇게 초밥을 좋아하는 현민의 미각을 감동시키는 맛있는 초밥을 드시러 오기 바란다.

자연, 역사 문화, 음식, 온천 등 다양한 매력을 즐길 수 있는 이시카와현 고마쓰(小松) 공항까지는 인천국제공항에서 불과 1시간 45분 거리다.

또한 올 3월에는 호쿠리쿠신칸센이 운행을 시작하여 가나자와역과 도쿄역을 최고 속도 2시간 28분 만에 이어주고 있다. 꼭 한번 이시카와현을 방문하기 바란다.



일본 음식 중에 면요리하면 라멘이나 우동 또는 소바를 떠올리게 된다. 다양한 면요리가 존재하는 일본에서는 각 지역마다 대표 면요리가 존재하는데 이와테현(岩手県) 모리오카시(盛岡市)에도 3대 면요리가 존재한다. 쫄깃쫄깃하고 담백하며 시원한 국물이 일품인 모리오카 냉면(盛岡冷麵), 사람들과 어울려 분위기와 함께 맛 보는 완코소바(わんこそば) 그리고 납작한 면에 뿌려진 고기 소스가 절묘한 조화를 이루는 자자면(じゃじゃ麵), 이 세가지 면요리가 한국에는 알려지지 않아 생소하지만 특색 있고 개성 넘치는 맛으로 일본에서는 많은 고정 팬을 확보하고 있으며 한 번 맛 보면 자꾸 먹고 싶어지는 음식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와테 모리오카 3대 면요리



완코소바

그릇에 한 젓가락 분의 메밀국수를 담아 무한 리필로 먹을 수 있는 것이 완코 소바다.

‘완코’라는 단어는 그릇을 말하며 ‘소바’는 메밀국수를 뜻한다. 옆에서 면을 담아 주는 사람이 응원 구호를 외치며 실재 없이 그릇에 국수를 부어 준다. 배가 불러서 더 이상 먹지 못할 정도가 되어도 계속 부어 주는데, 타이밍 맞게 종업원이 부어주기 전 순식간에 뚜껑을 덮어 더 이상 못 먹겠다는 표시를 해야 한다. 여러 명이 모여 각각 다 먹은 그릇을 높이 쌓아 올려, 몇 그릇이나 먹었나 겨루며 재미를 더하다 보면 한층 흥이 나는 식사 자리가 된다. 완코 소바가 가게에서 판매하기 시작한 것은 전쟁 이후로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개성 있는 메밀국수를 팔고자 한 ‘완코야’라는 가게가 그 시초다. 처음에는 한 그릇도 팔리지 않은 날이 있을 정도로 인기가 없었으나, 국수를 부어주는 방법과 토핑 그리고 그릇을 개량해 가며 노력한 끝에 모리오카 시내에도 완코소바집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하나마키에서 열리는 완코소바 전일본대회에서는 5분간의 주어진 시간에 254그릇을 먹은 것이 최고 기록이며, 모리오카에서 열리는 전일본완코소바선수권에서는 시간 무제한으로 세운 559그릇이 역대 최고 기록이다.

완코소바 가게별로 완코소바 본연의 스타일을 중시하며 접대하는 형식으로 손님 먹는 속도에 맞춰 천천히 마지막까지 맛있게 먹을 수 있게 하는 곳과 관광객을 위한 퍼포먼스를 중

시하여 종업원이 국수를 담아주며 구호를 외치는 등의 스타일로 어필하는 가게, 두 종류로 나뉘어진다. 요즘은 그릇당 카운트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무한리필 정액제가 대부분으로 가게에 따라 그릇 수의 제한이 있는 곳도 있다. 토핑 재료로는 얇게 썬 파, 가다랭이포 등이며 가게에 따라 참치 회나 같은 마, 오징어 젓갈과 튀김 등 다채롭다. 이를 국수와 함께 먹으면 맛에 변화를 주어 질리지 않고 더 많이 먹을 수 있게 된다.

아즈마야 <http://www.wankosoba-azumaya.co.jp/>

모리오카 냉면

요즘에는 여름뿐만 아니라 사계절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고 있는 냉면. 일본에서는 모리오카 냉면이라는 이름으로 인기가 높다. 한국에서 즐겨 먹는 냉면과는 엄연히 면의 종류나 토핑도 달라 냉면이 아닌 새로운 종류의 차가운 면 요리처럼 느껴지지만 김치와 고기 육수 맛이 어우러져 깔끔하고 개운해서 일본 사람들은 여름철 외에도 느끼한 고기구이를 먹고 난 후 입가심 요리로 많이 찾고 있다.

한국 냉면의 면과는 굵기도 색깔도 식감도 다른데 밀가루와 전분을 섞어 반죽하여 반투명한 느낌이 마치 쫄면과 흡사하다. 소 뼈를 고아 감칠맛 나는 육수를 만들고 김치를 얹어 매콤한 맛과 새콤한 맛이 잘 어우러지게 만들었지만 처음 맛 보는 일본인 중에는 면의 식감 때문에 고무줄 같거나 씹기 어렵다는 평가도 있고, 초반에는 지금처럼 김치도 대중적이지 않아 그다지 인기를 얻지 못했다.

하지만, 어떤 경위로 일본 그것도 이와테현 모리오카의 명물이 되었을까. 이 음식의 역사는 반세기 전 모리오카에서 '식도원'이라는 고기 집을 경영하던 함흥 출신 주인이 고향인 한국의 맛을 재현하고 싶어 시작하게 되었다고 한다. 도쿄의 유명한 가게에서 요리 공부를 하던 그는 모리오카에 돌아와 예전에 먹었던 냉면의 맛을 구현하고자 개발한 것이 모리오카 냉면이다. 봄이 일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로 어느 체인점의 고기집 광고가 갑자기 인기를 얻기 시작하면서다. 1986년과 1996년 모리오카에서 전국 면 서밋이라는 이벤트가 개최

되자 냉면의 인지도는 비약적으로 향상되었으며, 제면업자들이 선물용으로 휴대하고 만들기 편하게 냉면을 개발해 가정에서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면서 서민의 맛으로 정착하기 시작했다.

2000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모리오카 냉면의 생면에 '본고장', '명산'이라는 표시를 허가하며 명실상부 모리오카의 명물이 되었다. 모리오카 냉면은 대부분 입가심용으로 과일을 올리는데 사과나 수박 또는 배 등 계절에 맞춰 토핑을 바꾸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모리오카에서는 냉면에 매운 맛을 내기 위해 주로 짝두기를 얹어 낸다. 대부분의 냉면은 가게마다 강중약으로 매운 맛을 선택할 수 있어 매운 것을 못 먹는 어린이에서 어른까지 폭 넓게 즐길 수 있다.

한국에서도 모리오카 냉면의 대표적인 브랜드인 뽕뽕샤의 냉면을 맛볼 수 있다. 뽕뽕샤의 기술을 전수 받아 온 셰프가 만드는 모리오카 냉면은 비슷한 냉면에 조금은 진부함을 느끼는 사람에게는 이색적인 맛이 될 것이다.

압구정 뽕뽕샤 <http://pyonpyonsya-jeok.com/>
모리오카 뽕뽕샤 <http://www.pyonpyonsya.co.jp/>

자자면

모리오카의 또 다른 명물 자자면은 칼국수와 비슷한 면에 다진 고기와 여러 양념을 섞어 만든 '자자 소스'를 얹어 오이채와 간 생강을 섞어 취향에 따라 고추기름이나 식초를 첨가해 비벼 먹는 독특한 면이다.

면을 먹고 난 후 그릇에 날 달걀을 풀고 삶은

물을 부어 소금 후추로 간을 맞춰 마시는데, 이것이 '치탄탄'(생략해서 '치탄'으로 부름)이라는 계란국이다. 마지막에 이 국물을 마시지 않으면 자자면을 먹은 것이라 할 수 없다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필수 과정이라고 한다.

자자면의 맛을 좌우하는 것이 바로 소스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장이다. 면 자체는 그다지 큰 차이가 없으나 소스의 맛이 각 가게마다 큰 개성을 나타내고 있다. 다진 고기에 야채 그리고 각종 양념을 더해 만드는데 방법이나 비법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여러 가게를 돌면서 서로 조금씩 다른 맛을 먹어 보고 비교하는 것도 자자면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이다. 최근에는 대부분의 점포에서 택배 발송이 가능하도록 포장 판매를 하고 있어 집에서든 만들어 먹을 수 있다. 자자면의 역사는 반세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1953년경 포장마차에서 만두를 팔던 다카시나라는 사람이 만주에서 생활할 때 먹었던 자자면의 맛을 재현해 보고자 만두피를 만들다 남은 가루로 면을 만들고 소스를 개발해 가게에서 판매하기 시작한 것이 처음이다.

고추기름, 고기소스, 식초, 마늘 등 취향에 맞춰 토핑 양과 종류를 정해 첨가하기 때문에 단맛, 신맛, 매운맛 등이 섞여 복잡하고 깊은 맛을 낸다. 면의 쫄깃한 식감도 독특하여 이 음식의 매력을 더해주고 있다.

파이롱 <http://list.tabihiro.jp/304984.html>
자자오이켄 <http://homepage3.nifty.com/jyajiaoiken/>

(협력 : 북도호쿠 3현 홋카이도 사무소)





2015 여름일본문화소개전 일본의 놀이문화 체험전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에서는 7월 24일(금)부터 '2015 여름일본문화소개전 : 일본의 놀이문화 체험전'을 개최한다. 특히 7월 24일(금)에는 일본전통음악 연주회 '일본의 풍경 콘서트-여름(夏)'이 열리며, 행사 기간 중에는 방학을 맞은 초등학생을 위한 일본문화체험교실, 온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여름방학특선 일본영화 상영회가 개최된다. 무료관람.

일시 7월 24일(금)~8월 5일(수) 10:00~17:30(일요일 휴관)

장소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문의 02-765-3011(120, 123)



가미후센과 다루마오토시

일본의 지역완구 및 인형 전시

홋카이도(北海道)부터 오키나와(沖縄)까지 일본 각 지역의 특색 있는 완구를 비롯하여 설 완구, 족세공 완구 등 특색 있는 인형이 전시된다.

일본의 여름축제 놀이 체험과 일본의 놀이도구 체험

일본의 전통놀이 전시를 관람하고 직접 체험하는 행사로서 긴교스쿠이(금붕어 건지기)와 요요쓰리(요요물풍선 낚기) 같은 축제놀이와 도구를 이용한 전통놀이부터 딱지치기, 구슬치기 등 일본의 다양한 놀이를 체험할 수 있다.



요요쓰리

초등학생 일본문화체험교실

방학을 맞은 초등학생의 일본문화 이해를 돕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직원이 일본 문화 소개, 퀴즈대회, 종이공작 등을 진행한다. 참가비 무료.

일시 7월 24일(금), 25일(토), 27일(월), 28일(화), 29일(수), 30일(목) 11:00~12:30

8월 1일(토), 3일(월), 4일(화), 5일(수) 14:30~16:00

장소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3층 회의실

참가대상 초등학생 전학년(보호자 동반 가능), 각 회당 20명 이내

참가방법 7월 13일(월)~각 체험일 2일 전까지 이메일(event@so.mofa.go.jp) 예약. 선착순.

①초등학생 일본문화체험교실 명기 ②날짜 및 시간 ③참가학생 성명 ④참가자 학년

⑤보호자 연락처(휴대폰 번호) ⑥과거 참가 경험 유무를 기입 후, 아래의 이메일 주소로 예약 신청.

1인 2명까지 신청 가능.



초등학생 일본문화체험교실

일본의 풍경 콘서트~여름(夏)~

일본의 전통악기 고도, 샤쿠하치, 사미센의 향연, 샤쿠하치 연주가 요시오카 류켄(吉岡龍見) 씨와 고도 연주가 도미모토 세이에이(富元清英) 씨를 중심으로 한 요시오카호가쿠사(吉岡邦楽社)의 특별공연. 이번 공연에서는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부수석 연주자인 고보석 씨가 거문고 연주를 통해 한국의 전통음악도 선사할 예정이다.

일시 및 장소 7월 24일(금) 19:00,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3층 뉴센추리홀

관람방법 7월 13일(월)~23일(목) 이메일(event@so.mofa.go.jp) 예약 신청

①일본의 풍경 콘서트~여름~명기 ②참가자 성명 ③참가자 인원수(1인 다수 신청 가능)

④휴대전화번호를 기입, 이메일 신청.



일본전통음악 연주회

일본 애니메이션 상영회

(시간 14:30분(14시부터 입장. 선착순 무료입장) 장소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3층 뉴센추리홀)

7월 27일(월) 고쿠리코 언덕에서 コクリコ坂から / 7월 28일(화) 언어의 정원 言の葉の庭

7월 29일(수) 어느 비행사에 대한 추억 とある飛空士への追憶 / 8월 3일(월) 게드전기 ゲド戦記

8월 4일(화) 스카이크롤러 スカイ・クロラ / 8월 5일(수) 바다가 들린다 海がきこえる

제13회 일본가요대회



올해로 13회를 맞이하는 일본가요대회가 오는 7월 31일 개최된다. 만40세 미만의 한국인이거나 누구나 참가 가능하며, 본선 입상자에게는 일본 방문 프로그램의 참가 기회와 푸짐한 부상이 주어진다.

예선일시 7월 18일(토)~7월 19일(일) 11:00~
본선일시 7월 31일(금) 18:30~
장소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3층 뉴센추리홀
주최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후원 일반법인 음악산업 · 문화진흥재단(PROMIC), (주)DREAM BOY
협력 MAGES Inc., Sony Music Publishing (Japan) Inc., 5pb.Records, Us from U,LLC, mail.inc., PURETONE MUSIC, Vinland
협찬 DK KOREA, ANA, YAMAHA MUSIC KOREA, Nikon, IBIS 서울명동호텔, 게임포커스

[응모요령]

기간 6월 12일(금)~7월 13일(월)
방법 주한일본대사관 홈페이지(<http://www.kr.emb-japan.go.jp>)에서 지원서를 다운로드해서 작성 후 이메일(jmic@so.mofa.go.jp) 접수
본선진출자 발표 7월 23일(목) 주한일본대사관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지
문의 02-765-3011(110) jmic@so.mofa.go.j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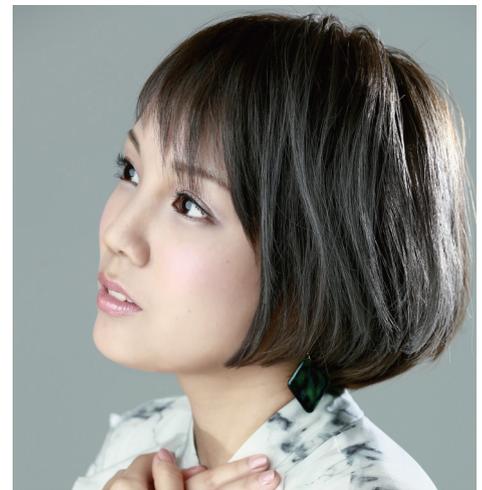
축하공연 아티스트

마유코(Mayuko)

미대 회화와 출신의 마유코는 붓이 아닌 음을 사용한 표현에 매료되어 음악에 빠져 들었다. 2001년 10월 미니 앨범 'TOY CROSS'로 데뷔했다. 2007년 7월 미니 앨범 'Amarance' 발매. 2008년 영국 레이블 'KFM Records'에서 'Hikari to Iro' 발매. 그 다음해 'Hikari to Iro (chronik remix)'를 발매했다. 2011년 3월 싱글 '소메이요시노(ソメイヨシノ : 왕벚나무)'를 발매. 같은 해 8월 동일본 대지진에 대한 자선곡 '새벽의 시(夜明けの詩)'를 디지털로 발매. 2014년 4월 정규 앨범 'Vista Bouquet'을 발매. 7월에는 프랑스와 영국, 8월에는 미국, 11월에는 이탈리아 등 해외 각지에서 라이브 활동. 2015년 3월 프랑스, 4월 미국 등 각지에서 다수의 라이브 활동을 하면서 현재 일본 국내외 아티스트와의 콜라보레이션 기획과 신작 앨범 제작도 진행 중이다.
<http://mayucocoon.com/>

사사키 에리(SASAKI ERI)

1989년 후쿠오카현(福岡県) 출신. 어려서부터 클래식 바이올린을 배우기 시작해 교토대학 종합인간학부에 입학한 후, 경음악 서클에 가입해 송라이터로 활동을 시작했다. 졸업 후에는 '소니뮤직퍼블리싱(Sony Music Publishing)' 전속 작가로 곡을 제공하면서 노래와 코러스에도 다수 참여. 2015년 5월 27일 애니메이션 '플라스틱 메모리즈(プラスチック・メモリーズ)'의 오프닝 주제가 'Ring of Fortune'을 발매하며 가수 데뷔. 취미는 음악, 영화, 애니메이션, 해외 드라마 감상, 카페 탐방, 액세서리 만들기, FPS 게임, 심리학 등. 대학 시절에 결성한 프로그레시브 포스트 록 밴드 'Lattice'는 현재도 활동 중이다.





Asia Mania 한국에서 일본을 느끼다

일한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사업으로 코엑스에서 4월 30일부터 5월 3일까지 개최된 Asia Mania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한 김우리 씨의 체험 감상문을 사진과 함께 소개한다.

안녕하십니까. '한일관계 연구가'라는 꿈을 갖고 있는 24살 대학생 김우리입니다. 저는 현재 사학과에 재학하며 일어일문학과에서도 공부하고 있어, 과거와 현재의 일본을 매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일본을 더 가까이, 자주 접하기 위해 주한일본대사관 홈페이지를 방문하다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행사인 C-festival <Asia Mania>에 자원봉사자로 응모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문화를 알리는 소중한 자리에 참여한 경험을 많은 분께 알리고 싶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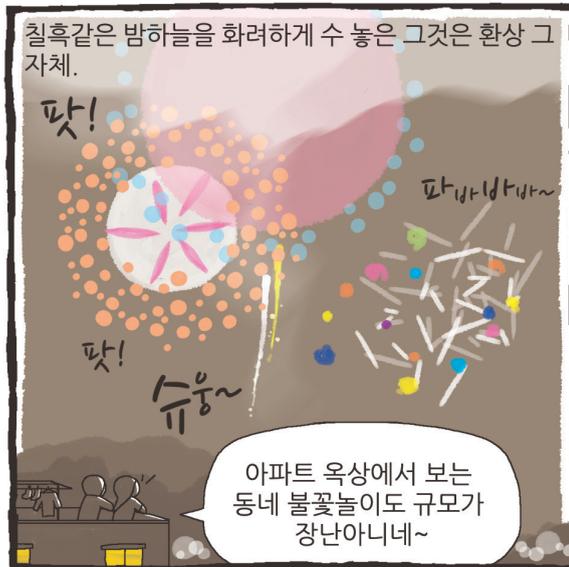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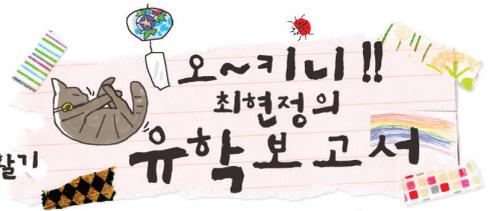
저는 일본문화홍보관의 일본전통놀이 체험부스에서 활동하며 홍보관을 찾아주신 분들께 놀이 방법을 설명하는 동시에, 놀이에 필요한 부수적인 작업을 도왔습니다. 육체적으로 힘들기는 했지만, 일본 문화에 관심을 갖고 놀이 하나 하나에 즐거움을 느끼는 방문객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나도 모르게 미소를 짓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활동을 통해 가장 감사함을 느낀 부분은 일본과 일본 문화를 사랑하는 친구들을 만났다는 점입니다. '일본'이라는 공통된 관심사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고 같은 시간을 공유할 수 있었다는 점이 정말 뜻 깊었습니다. '봉사'라기 보다 오히려 많은 것을 얻었고, 새로운 일본을 체험할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최근 양국관계에 적신호가 울리고 관계 개선을 위해 풀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는 가운데 국교정상화 50주년이라는 뜻 깊은 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양국이 오래 전부터 서로의 동반자이자 조력자로서 역사를 함께 해왔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관계 개선을 통해 동아시아를 넘어 세계 평화의 발판이 되는 날이 조속히 왔으면 합니다.

끝으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한일본대사관측에 감사 말씀을 전하며, 올 9월에 열리는 '한일축제한마당 2015 in Seoul'에서 일본을 사랑하는 여러분과 또 하나의 소중한 추억을 만들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가깝고도 먼 이웃나라 일본. 여행만으로는 알기 힘든, 일본 속으로 들어가 겪은 허둥지둥 좌충우돌 유학생활기



회사 동료가 뜯어다 준 정보에 몸을 맡긴 채 간사이(関西) 지역을 누비며 친구와 함께 하나비 투어를 간다.

오~ 하나비 투어 요거 아주 관찬네~

- 오사카 텐진 마쓰리(大阪天神祭り) -2015년 7월25일(토) 4,000발.
- 오사카 PL(大阪教祖祭PL花火芸術) -2015년 8월1일(토) 20,000발 (일본 간사이 지역 최대!).
- 시가현 비와코(滋賀琵琶湖) -2015년 8월7일(금) 10,000발.
- 오사카 나니와 요도가와(大阪なにわ淀川) -2015년 8월8일(토) 비공개.
- 교토 우지가와(京都宇治川) -통상 8월 중순 5,000발 (올해 일시적 중지).

하나비를 즐기는 법

1. 많은 사람들이 모이므로 일찍일찍 여유있게 출발할것.
2. 미리미리 전망 좋은 곳 알아보고 자리부터 짐하기.
3. 저녁은 어디서 먹을까? 걱정을 불들어 매시라~ 길거리 야타이(屋台)는 온통~ 먹거리 천지!

따끈따끈 다코야키, 야키소바, 시원한 라무네 ... 여기서 떡볶이 팔아도 잘 팔릴것 같지않나? ㅋ

얼음 동동 식혜랑 수정과가 빠지면 섭하죠~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사업
日韓國交正常化50周年記念事業



2015 한 일 포토 콘 테스트 日韓 フォト コンテスト

응모기간 2015.6.22(mon)~11.01(sun)
応募期間

테마 J : 일본의 매력 대상 : 한국 국적자
<http://photocon-kr.japanem.or.kr/>

テーマ K : 韓国の魅力 対象 : 日本国籍者
<http://photocon-jp.japanem.or.kr/>



온라인 응모로 푸짐한 상품!



オンライン応募で豪華賞品!

주 최 |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공보문화원

공동주최



후 원

관광청, 일본정부관광국(JNTO), 주일한국대사관 한국문화원, 한국관광공사, 서울재팬클럽,
CLAIR 지자체국제화협회 서울사무소, 국제교류기금 서울일본문화센터, 교도통신사, 연합뉴스, 서울신문
문 의 | TEL : 02-765-3011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공보문화원